

『沙石集』의 敬語研究

- 「侍り」와 「候ふ」를 中心으로 -

都 基 禎*

(e-mail : kjdo@nsu.ac.kr)

目 次

1. 들어가기
 2. 地文의 「侍り」와 「候ふ」
 - 2-1 <侍り>
 - 2-2 <候ふ>
 3. 對話文의 「侍り」와 「候ふ」
 - 3-1 <侍り>
 - 3-2 <候ふ>
 4. 맺음말
-

1. 들어가기

中古期에는 대자경어로 「侍り」가 성행했으나, 헤이안(平安) 시대 후기가 되면, 「候ふ」의 사용이 시작되어 가마쿠라(鎌倉) 시기에 있어서는 「候ふ」가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고 「侍り」가 口語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게 된다.¹⁾

그러나 본 논문에서 인용할 중세 가마쿠라 시대의 불교 설화집인 『沙石集』에는 중세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侍り」가 대화문에서 「候ふ」와 함께 구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 남서울대학교 일본어과 교수 일본어학

1) 이 시기 「侍り」와 「候ふ」의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桜井光昭(1966)의 『今昔物語集の語法の研究』를 들 수 있는데, 인세키(院政期)에 완성된 『今昔物語』에는 「侍り」의 사용이 330례, 「候ふ」가 582례로, 「候ふ」가 「侍り」를 능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桜井光昭, 1966 『今昔物語集の語法の研究』 明治書院. pp.3-27) 가마쿠라 시대의 일기인 『十六夜日記』에는 「侍り」가 대자경어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候ふ」만 대화문에 전용되고 있다. (藁谷隆純, 1989 『中古・中世の敬語』 教育出版センター pp.213-239)

<表 1> 『沙石集』에 있어서 「侍り」·「候ふ」의 총 사용수²⁾

卷	侍			候		
	会話	地の文	計	会話	地の文	計
一	14	33	47	20	0	20
二	12	17	29	26	0	26
三	15	24	39	70	0	70
四	6	8	14	18	0	18
五本	3	13	16	17	0	17
五末	3	33	36	26	0	26
六	8	15	23	46	0	46
七	28	28	56	82	0	82
八	10	6	16	134	1	135
九	25	11	36	96	3	99
十本	21	11	32	39	2	41
十末	17	23	40	16	2	18
計	162	222	384	590	8	598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侍り」가 384(222)例, 「候ふ」가 598(8)例[()는 地文]로 「侍り」가 지문과 대화문에서 「候ふ」와 병용하고 있어 어법상 하나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侍り」가 지문이나 대화문에서 아직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侍り」가 구어적인 요소와 문장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沙石集』에 있어서 이러한 「侍り」의 사용실태에 주목하면서 당시의 구어라고 할 수 있는 「候ふ」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들이 가지는 대우성에 관해서 고찰한다.

본 논문에 사용한 예문은 岩波書店 日本古典文學大系 85 『沙石集』(渡辺綱也 校註)에서 인용했다.

2. 地文의 「侍り」와 「候ふ」

2.1 <侍り>

「侍り」는 헤이안 중기까지는 지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그 사용 유무에

2) 山下正治(1979) 「沙石集の研究(七)」- 「侍」と 「候」について 『立正大學紀要』 12. p.18

따라 대화문인가 지문인가를 구분할 정도로 구어로서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중세에는 일상생활의 대화문에서 「候ふ」가 그 자리를 대신하며 「侍り」는 文語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

『沙石集』의 地文에서는 「侍り」의 사용이 편중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1> 故東福寺ノ開山ノ長老、聖一和尚ノ法門談義ノ座ノスエニ、ソノカミノ
 ゴミテ、時々聽聞スル侍シニ、顯密禪教ノ大綱、誠ニ目出クキコヘ
 侍キ。其旨ヲエズト云ヘドモ、意ノ及ブ所、義門心肝ニ染テ、貴ク覺ヘ
 侍キ。ウラムラクハ、晩歲ニアヒテ、久座下ニアラザル事ヲ。然而佛法
 ノ大意、ヨクヨク教訓ヲカブリ侍リキ。關東下向ノ時、海道ノ一宿ノ雜
 事營テ侍シニ、ヨノ常ノ人ノ風情ニハ、「イミジクナム」ト、色代スル
 事ニコソ侍ニ、「ナジカハカゝル事營ミ給ヘル。アルベカラヌ事也。
 「初心ノ菩薩ハ、事ニ涉テ紛動スレバ、道ノ芽ヲ破敗ス」トコソ申セ」
 トテ、別ノ語[ナシ]。此語心肝ニソミ、耳ノ底ニ留リ。此ハ天台ノ御詞、
 玄義中ニ侍ルニヤ。

(3-8)

<1>부분은 작자 무주(無住:1226-1312年) 자신이 직접 체험한 설화 내용이다.³⁾ 도후쿠지(東福寺)에 부임한 쇼이치(聖一) 國師의 설법을 듣고 불법의 깨달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도카이도(東海道)에서 함께 머물게 되어 공양을 준비하다가 초심의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는 내용을 서술한 부분이다. 조동사 「키」가 문장에 쓰여진 것을 보더라도 이 부분이 무주 자신의 과거의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회상을 피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侍り」多用의 다른 예를 보기로 한다.

<2> 中ニアリケル陰陽師「神ノ罰ハ何事ノ候ベキゾ。封ジ候ハン」ト云ケ
 ルガ、坏ヲ持ナガラ、シバラレタルガ如クニシテ、手ヲ後ヘマハシテ、
 스크미、即チ死ニケリ。彼陰陽師ガ子息今ニアリテ、此事且ハ人ニモ語
 리侍ルトゾ。當世ノ事ナレバ、聞及ビタル人多ク侍リ。カノ子孫親類
 アル事ニテ、其憚侍レドモ、人ノ上ヲイハン爲ニハ非ズ。只神威ノ輕カラ
 ザル由ヲ、人ニ知セントノ爲也。

(1-10)

3) 실지로 무주는 弘長二年(1262)에 도후쿠지에 부임한 국사의 설법에 참석한 적이 있다. (渡辺綱也 校註,1966 『日本古典文学大系 85 沙石集』 岩波書店. p.164 上註20)

<2>는 정도중 사람이 신을 업신여기다가 벌 받은 이야기(卷1-10)로 앞의 <1>과는 달리 설화속의 등장 인물이나 장면 등에는 「侍り」 사용이 보이지 않고, 陰陽師의 대화 장면에서 「候ふ」만 2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彼陰陽師ガ息子今ニアリテ、～」이하부터는 작가가 설화의 수록과정에서 음양사의 자손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 것을 직접 들은 부분을 기술하는데 「侍り」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沙石集』에서 「侍り」는 작가의 자기 주장이나 설명, 그리고 와카에 대한 감상을 나타내는 부분에 많이 쓰이고 있다.

<3> 仰此物語ノ旨趣、序ニ書侍リト云ヘドモ、猶心ツキガタキ故ニ、重テ述懷ス。世間ニ古キ物語多シトイヘドモ、近代ノ事ハ書置事モ侍ラザルニヤ。代ノ末ニ聞ヘザラン事モ、ナゴリナク覺テ、愚ナル人の心ヲスゝムル便リニヤト、拙キ詞ヲハミカラズ、書置キ侍ル也。……是故ニ、諸宗ノ肝要、經論ノ至要、文義所々聞ヲキ侍ルヲ、世間ノ物語ノ中ニ書キ交テ、佛法值遇ノ縁トセント思許也。田舎ノ或山里ノ柴ノ庵ニテ、心許侍ルホドニ、書籍モ身ニソヘズ、手ニ任テ其意許ヤワラゲテ書ス。多ハ僻事モ侍ルラメドモ、其スヂ佛法ノ意ニタガワズシテ、大綱知給フ人ヲハセバ、願フ所タレリ。(述懷事)

<4> 去去年ノ冬ノ比、海道ヲ通侍シニ、富士ノ山ノフモトニ、雲ノ立廻レルヲ見テ、伴ニ侍リシ小法師、富士ノ山雲ノ袴ヲキタルカナワリナクキコヘシカバ、モダシテヤミガタク覺テ、雲ノ帷ウチカヅキツゝトツケテ侍リキ。サシモ秀逸ナラネドモ、事ノツイデナレバ、カキヲキ侍ルナリ。

(5末-7)

<3>은 작가가 『沙石集』의 집필을 마친 후, 설화를 수록하게 된 취지와 동기, 등을 되돌아 보면서 슬회하는 마지막 結語 부분으로 「侍り」를 10회나 사용하고 있다.

<4>는 와카에서 그 노래를 지은 동거나 날짜, 장소 배경 등을 적은 고토바가키(詞書)로 작자 자신의 느낌과 감상을 나타내는 와카의 連歌 부분에 많은 「侍り」를 쓰고 있다.

이와 같이 『沙石集』의 지문에서는 「侍り」가 설화의 묘사 부분에는 거의 사용이 없으며, 佛法에 대한 설명이나, 와카에 대한 작자의 느낌이나 감상, 그리고 집필자 자신이 직접 듣고 체험한 부분에 다용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특징적인 청자를 대우하는 대화문과는 달리, 지문에 있어서는 「侍り」의 경의 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독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한 작자 자신의 자기 주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여기에 사용된 「侍り」는 집필자의 생각이나 느낌, 감상, 체험담 등을 독자에게 「侍り」가 가지는 語感(정중함, 고풍스러움)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

2.2 <候ふ>

다음은 지문에 사용된 「候ふ」에 대해서 분석한다.⁵⁾

<5> 故法性寺ノ禪定殿下召テ、法門御尋アリケリ。一ナゲシ下リタル所ニゾ
上人候ワレケル。 (9-13)

<6> 福ヲウル事ハスクナク、罪ヲウル事ハ多キ佛事ノミコソキコユレ。是ハ
當時ハ得分ニ思ヒアヘ候共、大ナル損ナルベシ。 (8-23)

<5>에서는 禪定(禪定) 殿下의 동작 행위에 「召す」, 「御一あり」라는 존경어 표현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 사용된 「候ふ」는 「伺候する」라는 의미의 겸양어 용법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沙石集』에는 이와 같은 겸양어 용법으로 지문에서 쓰인 것은 <5>의 「候ふ」밖에 없다.⁶⁾

<6>에 사용된 「候ふ」는 현대어의 「-ます/-です」의 의미에 준하는 것이며 대자경어로 쓰이고 있다. 다른 예문을 보기로 한다.

<7> サテ鎮西ニ圓爾坊ト申候コソ、徑山ノ佛法ヲ傳テ歸朝ノ僧ニテ、禪門モ教
門モアキラカニ候へ。某ニハ十倍ノマサリノ師匠ト存ズルヨシ、上人申サ
レケレバ、 (9-13)

<7>의 「候ふ」는 지문 속에서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겸양어 용법인

4) 이러한 용법의 「侍り」를 日本国語大辞典(縮刷版 第8卷 p.1125)에서는 「地の文に用いて、あるものの存在を自己の経験したこと、知っていることにして、つつしみ深く表す。読者を予想した表現ともいわれ、特に中世に多いこの用法は、一種の雅語的用法である。」라고 기술하고 있다.

5) 山下正治(1979:18)가 집계한 <표1>에서는 「候ふ」가 8례로 되어 있으나, 1례는 지문이 아닌 대화문에 사용되어 있어 제외시켰다.

6) 중세 다른 작품의 지문에서는 「候ふ」가 겸양어 용법으로 주로 쓰이고 있으나, 『沙石集』의 지문에서는 이 용법으로 사용된 것은 <5>의 「候ふ」밖에 없다. 겸양어 용법으로 쓰인 「候ふ」는 대화문에서 다음과 같이 2례 보이고 있다.

* 小侍ヲ一人招キヨセテ、「アノ御前ニ候フ、歌ヲウタウ女房ドモガ許へ、カク申ヨシ
傳へテタビ候へ」トテ、(5末-2)

* 其夜ノ夢ニ、羸ガレタル法師一人古堂ニキテ、「年來候ツレドモ、追セ給へバ出デ
マカル」トテ、(7-22)

「伺候する」라는 의미는 없으며 <6>의 「候ふ」와 마찬가지로 대자경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7>의 「候ふ」가 사용된 부분은 문장 전후에 「申す」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화문에 가까운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시로는 지문이라면 보통 「侍り」를 사용해 독자에 대한 대자경어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이 부분을 대화문으로 본다면, 여기의 「候ふ」는 즈이쇼보(隨乘房)가 쯔젠조 전하에게 경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세의 다른 자료를 보면, 지문에서는 「候ふ」가 「伺候する」라는 의미의 겸양어 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을 대화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른 底本들과의 본문 대조를 통한 비교 분석이 요망된다.

지문에 사용된 「候ふ」의 나머지 3例도 다음과 같이 부분이 문맥상 대화문에 가까운 문장에 쓰인 것으로, 「伺候する」라는 의미는 없으며 대자 경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8> 故法性寺ノ禪定殿下ニ、御物語アリケル折節ニテ被申ケルハ、實賢ナンドガ車ニノリテ出仕仕モ、大方アルマジキ事也。サレドモ近代ハ昔ノ儀ヲ振舞、狂ゼルヤウニ人思アヘバ、世ニ隨テコソ振舞候へ。……ト被仰ケル。(10本-8)

<9> 上人〔ノ〕庵室へ列參シテ此事ヲ訴へ申テ、我々〔ガ〕頭全シテアルベキヤウモ候ワネバ、向後ノ爲ニモ此事申、沙汰セズハアシカルベシ。六波羅ニ知タル奉行入アリ。申合テ此童咎ニ可行由申ケリ。上人返事ニ(10本-5)

<10> 或時、長老ニイトマ申テ、マカリ候トテ出ケリ。(十末-3)

3. 對話文의 「侍り」와 「候ふ」

『沙石集』가 중세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화문에서 「侍り」와 「候ふ」의 사용수가 162 : 590으로 당시의 문장어인 「侍り」가 여전히 구어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侍り」가 많이 사용된 대화문을 중심으로 어떤 대상에게 주로 사용되며, 또한 「候ふ」와 비교해 어떠한 용법상의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侍り」와 「候ふ」의 사용 대상에 관해서는 청자를 중심으로 (I)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최고 신분 (II)大臣, 殿, 등 귀족 신분 (III)상급 승려, 神官 (IV)가마쿠라 정권의 집권자 (V)무사계급 (VI)출가자 (VII)서민 (VIII)神佛, 超人的인

것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고찰한다.

3.1 <侍り>

<11> (僧→白河院)

此僧申ケルハ、「老母ガ命ヲ助テ、暫モヤソイ候ント思テ、我身イカナル科ニモ行ナワレ候ヘ、母ハ命スコシモ延コト本意ト存候。此魚ハ今ハタスカルマジキニテ候ヘバ、コレヲ母ガモトヘツカワシ〔テ〕、一口モ物クキテ候ヨシヲ承テ、イカナル御禁ニモアタリ侍ラバ、モトヨリ存ジマウケタル事也。恨候マジ」ト奏シテ、

(9-8)

<12> (阿闍梨→宇治殿)

宇治殿の平等院建立シ、阿彌〔陀〕堂供養ノアリケルニ、山僧ニナニガシノ阿闍梨トカヤ貴キ聞アルヲ、御堂導師ニ請ジ給ヘルニ、施主分ニ、「此御堂造立ノ故ニ、地獄ニ落ちサセ給ハム事コソ淺猿ク侍レ」ト、シタリケレバ、

(8-23)

<11>은 천하에 살생을 금하는 명이 내려져 있는 상황에 어떤 산사의 스님이 아무것도 없고 먹지를 못해 죽어가는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가쓰라가와(桂河)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관현들에게 붙들려 시라카와인(白河院)의 처소로 끌려와 시라카와인에게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는 장면이다. 「此僧申ケルハ、『老母ガ……恨候マジ』ト奏シテ、」에서 알 수 있듯이 천황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절대 경어인 「奏す」를 사용하고 있어 청자가 최고 신분인 (I)단계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沙石集』에 있어서 「侍り」가 사용 대상의 계층이 최고 신분인 (I)(II)단계에 쓰인 경우는 <11>과 <12>의 「侍り」뿐이다. <11>의 경우는 대화문에 6회나 「候ふ」를 사용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侍り」가 1회 병용되고 있다. <11>의 대화문에서 청자가 (I)단계 계층인 경우, 「侍り」보다도 「候ふ」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에서는 우지도노(宇治殿)가 보도인(平等院)을 건립하고 阿彌陀堂에 공양을 올릴 때, 히에잔(比叡山)의 아무개 아사리라고 하는 유명하다고 알려진 스님을 도사로 초청해 공양한 시주의 공덕을 서술하는 부분에 사용된 「侍り」이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대화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화자(아사리)가 청자(우지도노)에게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施主分」에서의 「侍り」 표

현이다.

따라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II)단계의 계층에 대한 「侍り」의 사용은 일반적이라 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청자를 (III)단계 이하를 대상으로 할 때 「侍り」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13> [明惠上人→高野の遁世上人]

「此明惠房が過職ニナリテ侍ルガニクサニ、具シテ參テ侍也。……等閑ナラバトカクノ子細モアルマジキニ、身ノアルベキ様ヲ忘テ侍リケリ。一代ノ聖教ヲ、年久ク見侍ルニ、教フル所假名ニカゝバ、アルベキ様〔ノ〕六文字ナリ。……然に末代ハ、アルベキ様ミダレテ侍也。……」

(3-8)

<13>은 高僧인 묘예(明惠) 스님이 은둔 수행자들에게 석존의 모든 성스러운 가르침 가운데서 해탈의 길에 들어서려는 사람이 실천해야 할 佛法의 大義를 설법하는 부분으로 「候ふ」의 사용은 없이 「侍り」만 5회 사용하고 있다.

이 대화문에서는 청자를 (III)단계인 상급 승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III)단계의 계층을 청자로 한 「侍り」의 多用은 <山がつ→故金剛王院の僧正(10末-2)[14]> ([]는 사용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敬度面に 있어서는 대화문에서 최상급의 신분인 (I)(II)계층까지 사용되는 「候ふ」와 비교해 보면 낮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청자를 (VI)(VII)를 대상으로 하는 「侍り」를 보기로 한다.

<14> [入道↔入道]

或時、同ヤウナル入道、語寄テ物語シケルハ、「御發心ノ因縁ユカシク、誰モ申サム、被仰ヨ。コレハ都ニスミ侍リシガ、歎事アリテ、スミナレシ都コ、心トゞマラズ、アクガレ出デゝ此山へ上テ」トイフ。「コレモ都ノモノニテ侍ルガ、思ノ外ノ縁ニアヒテ、出家シテ侍ルナリ」ト云。

(10本-7)

<15> [或山寺法師→人々]

或山寺法師(ニ)此物語ヲセシカバ、「我身ニコソ是ニ似ル事ハ侍レ。師匠ニテ侍ル老僧、下人ヲ或所ノ地頭ニ被取テ、頻に沙汰ヲイタス。……」

(3-1)

<14>의 「侍り」는 (VI) 단계인 출가자들 상호간 대화에 사용된 것이며

<15>의 「侍り」는 청자를 (VII)계층으로 하는 일반 서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沙石集』의 대화문에는 「侍り」가 (IV)(V)계층인 당시의 집권층이나 무사 계급에 대해서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13>~<15>의 「侍り」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려들이나 출가자들의 대화에 있어 多用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 (VIII)단계의 계층에 사용한 「侍り」의 경우를 살펴본다.

<16> (餓鬼→地藏菩薩)

「アノ讚岐房ハ我子ナリ。アレヲ養フトテ、多クノ罪ヲ作りテ、此報ヲ受テ、飢渴ノ苦ミニ責ラレテ、術ナク候ニ、アレ給リテ食候ハン」と申ケレバ、「僻事也。是ハ汝ガ子ニ、少モ違ヌ別ノ者也」ト、仰ラルニ、「慥ニ我子ニテ侍リ。所モ父モシカシカ」ト、

(2-6)

<17> (蛇に妻を犯された者→蛇)

「各ナニシニカク集リ給ヘルツ。大方難存知侍リ。但一日メラベ晝眠シタリシヲ、蛇ノ犯タル事侍リキ。親リ見ツケテ侍リシカバ、……………」ト、事ウルハシクカキツクロヒテ云ケレバ、

(7-4)

(VIII)단계에 있어서는 神佛(<16>)과 초인적인 것(<17>)으로 나눌 수 있다. <16>의 「侍り」경우는 아귀가 지장보살에 대한 대우표현으로 한 문장에서 「候ふ」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 「候ふ」와 혼용해서 「侍り」를 사용하고 있는 대화문은 <地獄の馬頭, 牛頭→地藏菩薩(2-6)[1]>과 <炎魔王→地藏菩薩(2-6)[1]> 등을 들 수 있다.⁷⁾

<17>은 아내를 범한 뱀과 그가 데려온 무리들에게 그 남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뱀들에게 말하는 부분이다. 이 대화문에서 「侍り」를 6번이나 사용하고 있으며, 본문의 「事ウルハシクカキツクロヒテ」에서 알 수 있듯이 「侍り」의 語感이 가지는 어떤 「단호함」이나 「엄중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沙石集』의 대화문에서는 초인적인 대상(동물)이 화자나 청자일 경우에 <17>에서 본 바와 같이 「侍り」로 대우하는 특징이 있다.⁸⁾

7) 『沙石集』의 대화문에서 「侍り」로 神佛을 대우하는 경우는 <永超僧都→春日の大明神(1-7)[4]><示現→或る上人(1-8)[1]>정도이며, 다른 대화문에서 神佛에게 경의를 나타내는데는 「候ふ」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地藏菩薩ノトヲリ給フニ、走付テ、「御助候へ。報命末々盡ストテ、許レテ候ヘドモ、イカニ成ベシトモ覺候ハズ候」ト申セバ (2-6))

8) * <殺生した男→鶯の雌> (鶯の雌) 「イカニウタテノ童ガ夫ヲ殺サセ給タルゾ」

3.2 <候ふ>

<18> (伊勢國の夫→後嵯峨の法皇)

事ノ子細聞食サレテ、御感アリテ、「何事ニテモ所望申セ」ト仰下サル。「云甲斐ナキ身ニテ候へバ、何事ノ所望申候ベキ」ト、申上ケレドモ、

(5末-2)

<19> (乳母→姫君)

「……………殿ノ聞セ給ハム時、イタク物ナ被仰候ソ。アワレ、コノ御前ノ、物ヲ被仰ヨカシ。聞ムナムド思食時、モノハ仰候へヨ。春ノ鶯ノ、籬ノ竹ニヲトヅレムヲ聞ヤウニ、珍キ御事ニテ候へヨ」ト、教へ申ケレバ、

(8-12)

<18>은 고사가(後嵯峨) 法皇이 구마노(熊野)에 행차시 와카를 잘 읊은 이세(伊勢) 지방의 한 남자에게 감동을 받아 그에게 賞給을 주려고 묻고 답하는 대화 장면이다. 「聞し食す」「御一あり」「仰下す」라는 존경어 표현과 상대방에게 「~申せ」라는 自敬表現을 보더라도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신분 격차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沙石集』의 대화문에서는 <18>과 같이 청자의 계층이 최고 신분인 (I)단계에서는 「候ふ」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侍り」에 비교하면 敬度 또한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다.

청자의 계층이 (I)단계에서의 사용된 「候ふ」의 다른 예는 <比叡山の山僧→鳥羽法皇(2-1)[1]><少納言入道信西→鳥羽法皇(2-1)[3]><老翁→鳥羽法皇(5末-1)[2]> 등이 있으며 (I)단계의 청자에 대해 화자가 「伊勢國の夫」「山僧」「老翁」으로 되어 있어서 화자와 청자 간의 신분차이가 큰 경우에도 「候ふ」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의 「候ふ」는 유모가 영주에게 시집가는 아씨에게 필요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대화 부분에 쓰인 것으로, 敬度面에 있어서는 (I)단계 다음으로 높은 (II)단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단계의 계층에 대한 「候ふ」의 사용을 보기로 한다.

ト云。夢ノ中ニ(殺生した男)「サル事コソ覺へ侍ネ」ト云。(7-14)

* <母犬→山寺の人々>此母犬申ケルハ、「我身ハ、先生ニナニガシト申シ、遊女ニテアリシガ、五人ノ子ヲモチテ侍シガ、……………、一人ハ物ニモ覺へズシテ、我ヲワヅラハス事ニ侍シカバ、悪ミ思ヒナガラスコシ侍キ。今此五人ノ子ハ、彼五人ノ夫ナリ。……………」(7-9)

<20> (人々↔泰時)

「尤御所ニ仰ノ候様ニ、誰々モカクコソ存候へ。大方ハ御用心ノ爲ニモ、ツイヂツカレ候テ、堀ホラレテ候ハムワ、目出度候ナム。……」
泰時、打ウナヅキテ被申ケルハ、「各〔ノ〕」御志〔ノ〕色ハ、返々難有覺へ候。實ニ御志候へバ、御身ニハ安クコソ思給候へドモ、國々ヨリ夫共ノ上リテ次ニ築キ候ハムハ、ハカリナキ煩ニテ候ベシ。……」

(3-2)

<21> (侍共↔鬼九郎)

「御所へ參給テモ、既ニ一兩月ニナリ候へバ、今ハ同僚ニテコソ御座セ。互ニ隔心ナク可申承候」云ニ、「可然仰ニテ候。スゝミテモ申度存候ツルニナム」ト云程ニ、……」

(8-15)

<20>에서는 가마쿠라 시대의 집권자 야스도키(泰時)와 그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장면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侍り」의 혼용은 보이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이 야스도키에게 8회, 그리고 야스도키가 주변 사람들에게 17회, 각각 「候ふ」를 사용하고 있다. <21>은 무사들끼리의 대화에 「候ふ」를 무려 22회나 多用하고 있다.

『沙石集』에 있어서는 <20><21>에서 볼 수 있듯이 청자가 (IV)(V)단계인 가마쿠라 시대의 집권자나 무사 계급간의 대화에는 「侍り」를 사용 하지 않고 당대의 口語인 「候ふ」를 전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다음 청자를 (III)(VI)(VII)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候ふ」의 사용을 보기로 한다.

<22> (阿闍梨↔大圓房上人)

「此童ガ醉ヒ狂ヒ候テ、下ノ御坊ヲ散々ト打テ候ケル事ヲ、ツヤツヤ不承及シテ、子細申〔不〕入候ケル、返々恐入候。イカニモ勘當仕ベク候へドモ、……」ト申ケレバ、上人ウチ笑テ、「山寺ノ兒童ナムドワ、サコソ候へ。ナニノ過ト云事カ候ベキ。……」

(10本-5)

<23> (或山寺法師↔人々)

「此馬ノシサリ候時ニ、尻カラ渡ムト思ヒタルヨト心ヘテ、尻カラ渡シ候モワタラズ、頭カラモコエズ、シアツカイテ」ト云へバ、「タビ候へ」トテ、引渡タリケレバ、「ヨキシタクノ候ケルヲ」トゾ云ケル。

(8-7)

<22>는 제자의 잘못함을 비는 아사리와 이에 답을 하는 고승과의 대화문이다. 청자를 (Ⅲ)단계인 상급 승려나 神官을 대상으로 하는 「候ふ」의 사용이다. <23>의 「候ふ」는 (Ⅵ)(Ⅶ)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출가자와 길 가는 서민간에 있어서의 일상적인 대화에 사용된 것이다.

『沙石集』에는 청자를 (Ⅲ)(Ⅵ)단계로 하는 승려나 출가자 사이에 있어 「侍り」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18>~<23> 「候ふ」의 사용에서 볼 수 있듯이 「候ふ」는 승려 뿐만 아니라, 천황을 비롯한 귀족신분, 집권층, 무사계급, 승려,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4.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가마쿠라 시대의 불교 설화집인 『沙石集』을 자료로 해서 지문과 대화문에 사용된 「侍り」와 「候ふ」의 대우성에 관해서 고찰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문에서의 「侍り」는

- (1) 일반적인 설화 묘사 부분에는 사용례가 드물며, 집필자가 직접 듣고 체험한 설화 부분에 다용된다.
- (2) 작자의 자기 주장이나 설명, 와카의 고토바가키 부분에 사용된다.
- (3) 문장의 표현효과를 나타내는데 쓰이고 있다.

2) 지문에서 「候ふ」는

- (1) 겸양어 용법으로 1례 쓰인 것이 있으며, 나머지 6례는 대자경어로 사용된다.
- (2) 문맥상 대화문에 가까운 문장에 사용되어 대자경어로서의 역할을 한다.

3) 대화문에서 「侍り」는

- (1) 「候ふ」에 비해 敬度が 낮으며 서민에서부터 (Ⅲ)단계인 상급승려까지를 청자의 상한선으로 해서 사용된다.
- (2) 승려나 출가자간의 대화에 다용된다.
- (3) 초인적인 대상(동물)들의 대화에 전용되고 있다.
- (4) 대화에 있어서 「정중함」 「고풍스러움」 「단호함」 등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인다.

4) 대화문에서 「候ふ」는

- (1) 서민 계층에서 천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며 「侍り」에 비해 敬도가 높다.
- (2) 가마쿠라 시대의 집권자나 무사계급 계층의 대화에 전용되고 있다.
- (3) 당시의 口語로서 통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沙石集』이 중세 가마쿠라 시대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侍り」가 대화문에서 당시의 구어인 「候ふ」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법상 하나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이 작품이 설화집이라는 시대 설정이 늘 과거라는 관점에서 서술되기 때문에 비당대어인 「侍り」가 무리없이 독자들에게 받아 들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연구에서 대화문에 있어서는 「侍り」와 「候ふ」의 사용대상을 청자를 중심으로 계층별로 나누어서 고찰했다. 그러나 화자가 청자보다 신분이 상위인 경우에 사용한 경우가 있으며, 또한 한 대화문에서 「侍り」와 「候ふ」를 동시에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다음 과제로 남긴다.

【参考文献】

- 穂田定樹(1976) 『中古中世の敬語の研究』 清文堂. pp.155-205
- 川岸敬子(1999) 「『侍り』」についての考察—延慶本『平家物語』における—
『明治大学教養論集』286. pp.47-64
- 黒沢幸子(1975) 「中世説話集における待遇表現の研究 —「候ふ」「侍り」を中心に—」
『文学論藻』50 東洋大学国語国文学会. pp.131-155
- 小島孝之 校註(2001) 『日本古典文学全集 52 沙石集』 小学館. pp.18-616
- 桜井光昭(1966) 『今昔物語集の語法の研究』 明治書院. pp.3-27
- (1974) 「撰集抄の侍り」 『国語学』99. pp.43-52
- 下河部行輝(1980) 「沙石集における会話導入形式」 『岡山大学文学部紀要』1,
pp.55-70
- 辻村敏樹 編(1971) 『講座 国語史 5 敬語史』 大修館書店. pp.151-165
- 都基禎(2008) 『とはずかたりの敬語 研究』 제이앤씨. pp.145-171
- (2002a) 『『とはずかたり』の敬語研究 -文体的用法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学研究』第41輯 韓国日語日文学会. pp.141-156
- (2002b) 『『とはずかたり』の敬語研究 -「侍り」と「候ふ」를 中心으로-』
『日本語文化学報』第15輯 韓国日本文化学会. pp.59-74
- (2006) 『『沙石集』의 敬語 研究-对者敬語를 중심으로-』
『日語教育』38 韓国日本語教育学会. pp.123-138
- 西田直敏(1978) 「平家物語の「候ふ」」 『国語と国文学』45. pp.75-90
- 日本大辞典刊行会 編(1980) 『日本国語大辞典(縮刷版)』8巻 小学館. p.1125
- 布山清吉(1982) 『「侍り」の国語学的研究』 桜楓社. pp.417-491
- 林四郎・南不二男 編(1974) 『敬語講座③ 中世の敬語』 明治書院. pp.197-215
- 宮内健治 (1979) 「とはずかたりの丁寧語『侍り』と『候ふ』」 『解釈』25. pp.16-22
- 森野宗明(1967) 「丁寧語「候ふ」の発達過程について —中古・院政期初頭における状況—」 『国語学』68. pp.34-58
- 山下正治(1979) 「沙石集の研究(七)」 - 「侍」と「候」について 『立正大学紀要』12.
pp.16-25
- 若林俊英(1978) 「沙石集の会話文における「侍り」と「候ふ」」 『湘南文学』12.
pp.63-71
- 渡辺綱也 校註(1966) 『日本古典文学大系 85 沙石集』 岩波書店. pp.57-462
- 藁谷隆純(1989) 『中古・中世の敬語』 教育出版センター. pp.213-239

要 旨

本稿では古典敬語の研究の一環として中世鎌倉期の佛教説話集である『沙石集』に用いられている「侍り」と「候ふ」を地の文と会話文に分け、その待遇性について考察した。

地の敘述においては、すでに古語化しつつある「侍り」を用いて表現の主体である作者が不特定多数の読者に「古めかしさ」「改まり」「丁重さ」などを内容とする文章のある種の効果を語りかけようとする場合に使われている。従って、作者の感想、説明、追想など、作者側の事柄を記述する文に多く見られる。また、和歌の詞書にも用いられている。一方、「候ふ」は地の文においてその使用例が稀であり、しかも謙讓語用法で用いられたのは一例しか見出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

会話文においては、「候ふ」に圧倒されたといわれる「侍り」が依然として用いられており、語法上の一つの特徴を持っている。ただ、「候ふ」に比べて敬度も低く、その聞き手も上級僧侶までを上限線として使っているのが一般的で、主に僧侶や超人的な存在(動物)の対話に使用されている。一方、当代語「候ふ」は庶民から天皇まで幅広く使われ、その敬度においても高い。特に、鎌倉政権の執権者や武士階級に専用され、当時の口語として通用されている。

中世鎌倉期の資料であるにも関わらず、会話文において、場合によっては「侍り」が用いられていることは説話集の時代設定が常に過去であるために、平安期の口語である「侍り」の表現を通して読者に無理なく享受を引きおこすという文章のある効果を得るためであると判断できる。

キーワード：侍り、候ふ、地の文、会話文、話者、聞き手

투 고 : 2011. 5. 31
1차 심사 : 2011. 6. 11
2차 심사 : 2011. 6. 25